

삭개오가 받은 은혜

The Grace Zacchaeus Has Received

누가복음 19:1-10

그리니치 한인교회

2013년 8월 18일 설교

¹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²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³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⁴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러라. ⁵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⁶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⁷몇 사람이 보고 수군거리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⁸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뉘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사배나 갚겠나이다." ⁹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¹⁰인자의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시대상과 세리

예수께서 죄인의 대표로 자주 언급하신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아시지요? 창녀하고 세리입니다. 창녀는 동서고금 없는 데가 없습니다만 어딜 가나 죄인입니다. 요즘은 몸 파는 것도 노동이라고 합법이 된 나라도 많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걸 대놓고 자랑할 사람은 없습니다. 딸한테 물려주겠다는 사람은 더더욱 없겠지요. 그런데 세리는 왜 창녀하고 나란히 말 씀하셨을까요? 세리는 말 그대로 세금을 걷는 사람입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 모든 국민이 싫어하는 게 세금입니다만 창녀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창녀는 미국이나 한국을 비롯해 웬만한 나라에서는 범죄자이지만 세리가 없으면 나라가 망합니다.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당시의 시대상을 알아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독립된 나라가 없습니다. 다윗 왕국이 남북으로 갈라져 차례대로 멸망한 이후에는 바빌로니아 페르시아 등 다른 민족이 그 지역을 점령해 다스렸습니다. 그 나라가 힘이 세면 눌러 지내다가 약해지면 자치권도 좀 누리고 하면서 수백 년을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주전 육십 년 경 로마에게 먹혔습니다. 로마는 처음 직할 통치를 하다가 헤롯을 왕으로 임명해 그 지역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로마의 감독을 받아야 되지만 웬만한 건 헤롯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로마가 헤롯에게 요구한 가장 중요한 게 뭘겠습니까? 돈이지요. 세금입니다.

일본이 한국을 통치할 때는 쌀이나 광물을 수탈해간 걸로 모자라 한국인을 일본인으로 개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창씨개명이라 해서 이름도 일본식으로 바꾸고 말도 일본말만 하라고 강요했습니다. 그런데 로마는 안 그랬습니다. 이름을 바꾸라고도 안 했고 라틴만 쓰라 강요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로마에 대들지 않고 세금만 꼬박꼬박 내면 다른 건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 그래서 헤롯이 가장 정성을 들인 게 바로 세금을 걷는 일입니다. 로마에 일정한 액수를 바쳐야 됩니다. 게다가 헤롯이 황제에게 아부하기 위해 지중해변에 가이사라라는 도시를 건설했다 그랬지요? 마사다라는 요새도 증축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삽질에는 돈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 자나 깨나 생각하는 게 돈, 세금이지요.

그런데 세금은 로마 군인들이 걷는 게 아닙니다. 전체 진행이야 헤롯 왕궁의 관리들이 하겠지만 일선에서 직접 세금을 정하고 거두는 일은 로마 사람이 아닌 유대인이 합니다. 일제 때하고 똑같지요. 대장은 일본 사람이 하지만 졸개는 조선인이 맞습니다. 일본 앞잡이지요. 쌀이나 곡식을 약탈해갈 때도 그렇고 일본어를 안 쓰거나 해서 말을 안 듣는 한국 사람을 가두고 고문할 때도 그렇고 언제나 악역은 조선 사람이 맞습니다. 충성심을 인정받기 위해 더 악랄하게 합니다. 그래서 일제 때 그런 말이 있었습니까. 일본 놈보다 조선 놈이 더하다. 독립투사를 찾아내고 고문한 형사 가운데 그런 사람이 많았지요.

죄인의 대표 세리

예수님 당시의 세리는 우리 식으로 하자면 친일파입니다. 일본 앞잡이가 되어 동족의 피를 빨아먹던 사람들 아닙니까? 이 말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친일을 한 사람도 친일파라 하면 기분 나빠합니다. 나쁜 짓인 줄은 저도 아니까요. 예수님 당시 세리가 이렇게 로마제국 앞잡이 노릇을 하던 사람들입니다. 일제 때 독립운동을 한 분이 많지 않습니까? 사흘 전이 광복절이었습니다만 그분들의 희생 덕에 우리가 오늘 이렇게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몸 바쳐 재산 바쳐 독립운동을 하는데 세리라는 인간들은 로마제국에 빌붙어 동족의 피를 빨아먹습니다. 얼마나 밉겠습니까? 그래

서 세리는 곧 죄인이 되었습니다. 개인 윤리 면에서는 가장 더러운 죄인이 창녀였습니다. 사회 윤리 면에서는 가장 더러운 죄인이 세리입니다. 그래서 죄인 하면 창녀와 세리가 된 겁니다. 예수께서도 죄인이라는 말 대신 창녀와 세리라는 표현을 자주 쓰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세리를 정말 나쁘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멸감을 느낄 정도입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마 5:46)? 세리처럼 천하고 더러운 인간들도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사랑할 줄 안다는 말씀이지요? 우리 식으로 하자면 친일파도 제 편은 챙긴다, 그런 말씀쯤 되겠지요. 또 있습니다.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마 18:17). 죄 지은 사람을 권고할 때 개인이 해 보고 지도자를 데리고 가서 해 보고 그 다음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가르침까지 거부하거든 누구처럼 여기라고요? 이방인처럼 세리처럼 여기라! 이것도 대단히 모독적인 표현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 취급을 아예 하지 말라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세리는 민족반역자일 뿐 아니라 또 도둑놈이었습니다. 세금을 결정하고 징수하는 일은 예나 지금이나 상당한 권력입니다. 개인이든 집단이든 권력은 그냥 놔두면 썩습니다. 서로 견제도 해야 되고 언론이 살아 감시도 해야 됩니다. 지금 한국 보세요. 입법, 사법, 행정부가 한통속이 된 데다가 언론까지 들러붙어 썩는 냄새가 온 세계에 진동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세리도 따지고 보면 상당한 권력입니다. 헤롯이 백 데나리온을 걷어라 하면 백 이십쯤 걷어 가지고 이십은 착복을 합니다. 헤롯은 백만 받으면 되니까 더 걷든 말든 시비 안 합니다. 게다가 헤롯이 말 안 한 세금도 마음대로 뜯어갑니다. 힘 없는 백성들이야 내라 하면 내야지 어디 가서 하소연을 하겠습니까? 세례요한이 회개하라 외치자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회개하는 건지도 물었습니다. 군인들한테는 폭력을 쓰지 말라 했고 세리들한테는 “정한 세 외에는 녹징치 말라” 했습니다 (눅 3:10-14). 정부가 요구하는 만큼만 걷지 더 뜯어내지 마라는 말입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

예수님의 열두 제자 가운데 전직 세리가 있습니다. 마태지요? 레위라고도 부릅니다 (눅 5:27). 예수께서 산상수훈을 가르치실 때 마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기분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내가 세리 출신인 걸 뻔히 아시면서 그걸 대놓고 말씀하셨으니 서운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저주 받은 사람으로, 지옥 갈 사람으로 여기라는 말 아닙니까? 웬만하면 그냥 “죄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이방인과 죄인처럼 여기라” 하셔도 될 걸 꼭 기분 나쁘게 “세리처럼 여기라” 하셔야 됩니까?

듣는 사람을 기분 나쁘게 만드는 여기 사실 예수님의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좋은 보기가 있지요. 수로보니게 여인입니다 (막 7:25-30). 이방인인 이 여인이 예수께 와서 귀신 들린 딸을 고쳐 달라 간청했습니다. 그 때 예수께서 아주 기분 나쁜 말씀을 하셨지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자녀고 이방인인 너는 개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 때 여인이 뭐라 대답했습니까? “옳으신 말씀입니다. 하지만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어제 송 권사님 따님 시골집에 가서 음식을 먹는데 개 두 마리가 테이블 밑에서 계속 왔다갔다 합니다. 떨어지면 먹겠다는 거지요. 예수님은 아주 기분이 나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인은 기분이 나쁘고 자시고 할 겨를이 없습니다. 딸을 고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들러붙습니다. “개라도 좋으니 고쳐만 주옵소서!”

세리를 이렇게 나쁘게 보셨으니 예수님이 유대 민족주의자인가 그런 생각마저 듭니다만 그건 아닙니다. 예수께서 세리를 죄인의 대표자로 말씀하신 데는 다른 뜻이 있었습니다. 구원의 뜻입니다. 세리를 죄인이라 거듭 말씀하신 이면에는 우리 주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주님은 세리 마태를 부르신 다음 마태 집으로 가 잔치를 벌이셨습니다 (마 9:9-13; 눅 5:27-39). 마태가 주님 제자가 되어 기쁜 나머지 큰 잔치를 베풀 거지요. 마태가 직업이 세리다 보니 동료 세리가 잔치에 많이 왔습니다. 이걸 보고 바리새인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율법의 선생이라는 분이 어떻게 세리하고 같이 식사하실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때 예수께서 가르치신 말씀이 됩니까? “의사는 아픈 사람이 찾는 법이다. 난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하셨습니다. 바리새인은 제가 의인인 줄 압니다. 아픈 줄 모릅니다. 그래서 구세주를 찾지도 않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런 사람을 위해 오신 게 아닙니다. 제가 죄인인 줄 아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찾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꾸중하시면서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가고 대신 세리와 창녀들이 먼저 들어갈 것이다” 하셨습니다 (마 21:31-32, 43). 바리새인은 제가 의로운 줄 알고 저만 구원받을 줄 착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세리를 저하고 비교도 할 수 없는 더러운 죄인으로 취급했습니다 (눅 18:11). 그렇지만 세리는 제가 죄인인 줄 알았습니다. 모를 수가 없습니다. 보는 사람마다 나를 친일파라고 손가락질합니다. 뒤에서는 또 얼마나 욕하겠습니까? 민족반역자입니다. 게다가 떼먹기도 많이 떼먹었습니다. 내가 죄인인 줄 나도 알고 이웃도 압니다. 하나님 앞에 서니 할 거라고는 회개뿐입니다. “하나님, 이 죄인을 그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삭개오의 관심

오늘 본문은 죄인을 향한 우리 주님의 깊은 사랑이 어떻게 구원으로 이어지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삭개오라는 한 세리가 예수를 만나 구원받은, 우리가 어려서부터 많이 배운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입니다. 직접 세금을 걷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지휘 감독하는 사람입니다. 세무서장 정도 되겠지요. 상당히 높은 자리입니다. 일선에서 세금을 걷는 사람들도 많이 때먹어 부자지만 윗선이니깐 더했겠지요? 당연히 부자였습니다. 게다가 지역이 여리고입니다. 당시 요단강 건너편하고 무역을 많이 해 경제 중심지였기 때문에 그 지역 세무서장 자리도 노른자위입니다. 한국으로 치면 서울 강남세무서장 정도 되겠지요.

어느 날 예수께서 이 여리고를 지나시게 되었습니다. 갈릴리에서 출발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입니다. 거기 가시면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것입니다. 삭개오도 예수라는 분이 오신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가 보고 싶었습니다. 이런 관심이 어디서 생겼을까요? 보니 삭개오가 키가 작습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분은 키가 얼마나 큰지 한 번 보자, 그랬을까요? 아마도 세리장으로서 예수께서 세리에 관해 하신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세리를 죄인의 대표로 취급한다는 이야기도 들었겠지요. 이방인하고 동급으로 심지어 창녀하고도 동급으로 친답니다. 요즘 같았으면 명예훼손으로 소송도 걸었겠지요. 그런데 예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세리가 천국에 먼저 들어간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게다가 열두 제자 가운데 세리 출신도 있습니다. 도대체 뭐가 진짤까 그런 생각도 들었을 겁니다. 하여간 그런 저런 게 모여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겠지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이 모였습니다. 예수라는 분이 생각보다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나는 키가 작습니다. 키만 좀 크면 뒤에서도 볼 수 있겠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인 상황에서는 어렵습니다. 재미있는 건 사람들을 비집고 앞으로 나갈 생각은 아예 안 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내가 세리장인 줄 다 압니다. 사람들은 나를 더러운 개 보듯 합니다. 비집고 나가기는 커녕 접촉도 못 합니다. 그런 상황이면 관두는 게 보통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예수께서 가실 길로 앞서 달려가 길가에 있던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무슨 어린애도 아니고 세리장입니다. 사람들은 나를 더럽다 욕하지만 내가 보는 나는 고위공직자입니다. 권력과 돈을 다 가진 사람입니다. 지위도 있고 체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에 대한 관심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라는 분을 내가 꼭 봐야 되겠다, 내 두 눈으로 꼭 보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보통이 넘는 큰 관심입니다. 왜 그리 예수가 보고 싶었는지 어찌면 저도 몰랐을 겁니다.

예수의 관심

예수께서 가시다가 삭개오가 있는 곳에 머물러 서셨습니다. 그리고는 위를 올려다보시면서 삭개오를 부르셨습니다. “삭개오야, 얼른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좀 묵어야 되겠다.” 예수께서는 삭개오가 거기 있는 줄 아셨습니다. 이름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삭개오의 관심이 키가 얼마나 큰지 보고 싶은 것도 아니고 세리를 욕한 사람이 누군지 궁금했던 것도 아니고 영적인 관심이었다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삭개오의 관심은 삭개오의 믿음이었습니다.

몇 년 전 이 본문을 살필 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예수에 대해 듣고 이 분이 나를 구원하실 본인 줄 알고 믿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을 찾은 거지요. 그런데 그렇게 주님을 믿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주님을 찾아 만난 줄 알았더니 주님은 이미 나를 알고 계셨습니다. 내가 주님을 찾기 전에 주님이 먼저 나를 찾아 주셨습니다. 내가 주님을 알고 믿기 전에, 훨씬 전에,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주를 만드시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것으로 택해 주셨습니다. “삭개오야, 얼른 내려오너라!” 예정론 교리가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께서 부르셨더니 삭개오가 어떻게 했습니까?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삭개오의 본심이 드러납니다. 서둘러 내려오너라 하신 그대로 서둘러 내려왔습니다. 네 집에 묵어야겠다 하신 말씀 그대로 예수님을 집에 모셨는데 즐거워하며 했습니다. 기분 좋습니다. 예수께서 내 집에 오신답니다. 제자만 열둘입니다. 아무 집에나 가실 수 있겠습니까? 역시 집은 크고 볼 일이지요? 그냥 얼굴만 한 번 봐도 좋겠다 싶었는데 집에 오시겠다고 합니다. 오셔서 하루 주무시겠다고 합니다. 누구기에 집에 오겠다고 즐겁습니까? 어떤 사람이기에 하룻밤 묵고 가겠다고 이렇게 좋습니까?

삭개오는 이미 믿었습니다. 소문을 듣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보고 싶었습니다. 그냥 관심이라면 사람도 많고 키도 작으니 “에이, 관두자” 하겠지만 내 평생에 늘린 짐을 풀어주실 분입니다. 민족 반역자라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도둑놈이라고 욕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맞는 말이지요. 죄인 맞습니다. 매국노요 도둑놈이요 악덕 세리장입니다. 나도 벗어나고 싶습니다. 하지만 안 됩니다. 돈이 생기는데요. 이 자리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애를 썼겠습니까? 마음과 현실 사이의 갈등으로 괴롭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오신답니다. 혹시나 그 분 얼굴이라도 보면 무슨 일이 생길까 나와 보았는데 집에 오시겠다고 합니다.

잃어버린 자를 건지심

예수께서 삭개오의 집에 오시는 순간 삭개오의 믿음이 확정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소문을 듣고 대충 믿었던 게 확실한 믿음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진리를 깨닫고 자유를 얻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노예였습니다. 돈의 노예였고 권력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유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님께 말씀드립니다. 주님은 앉아 계시는데 제가 일어나 말씀드린 거라면 예의를 갖춘 게 되겠고 그렇지 않고 주님도 저도 선 채로 이야기를 주고받은 거라면 집에 들어가 자리에 앉기도 전에 이 말부터 했다는 뜻이 되겠지요. 어느 쪽이든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보소서, 주님. 제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강탈한 재산은 네 배로 갚겠습니다.”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다는 것은 삭개오가 얻은 자유를 보여줍니다. 부자니까 반만 남아도 상당할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는 내가 재물의 노예가 더 이상 아니라는 겁니다. 강탈한 걸 네 배로 갚겠다 했는데 강탈한 걸 일단 시인했습니다. 그게 잘못이라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런 다음 그 잘못을 바로잡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네 배는 율법이 요구하는 벌입니다. 그 벌을 자원해 받았으니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겠다는 각오입니다. 재물과 권력과 헛된 명예에서 완전히 벗어난 자유인 삭개오의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기분 좋게 한 말씀 하십니다. “구원이 오늘 이 집에 왔구나.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 당연한 일이지.” 삭개오가 구원받았다고 선언하십니다. 삭개오가 말한 내용이 진짜 믿음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지요? 그런데 그렇게 구원받은 이유는 믿음이 아니고 그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이라 하십니다. 예정론이 또 나오지요? 그런데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갈 3:7). 그게 그겁니다. 믿은 그 사람이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이고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사람이 예수를 구주로 믿은 그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한 말씀 덧붙이십니다.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려고 내가 왔다.” 삭개오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가출을 했습니다. 길을 잃었습니다. 하나님 대신 돈을 좇고 권력을 좇았습니다. 나쁜 짓인 줄은 알았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세리장 자리에도 오르고 부자도 되었습니다. 완전히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내 집에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유를 주셨습니다. 잃어버린 나를 다시금 집에 돌아오게 해주셨습니다.

삭개오가 받은 은혜

삭개오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죄에서 건져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가장 먼저 보이는 건 삭개오의 사회적 지위였습니다. 겉보기에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걸 다 가졌습니다. 돈 있고 권세도 있고 높은 자리에 있으니 나름 명예도 있습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굶아 들어갑니다. 민족반역자라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도둑놈이라고 욕합니다. 나도 싫지요. 하지만 싫은 그걸 더 합니다. 돈이 좋은데, 권력이 좋은데, 손가락질이 문젠니까? 그래, 욕해라. 이렇게 높은 자리에 못 올랐으니 욕이라도 해야겠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비난만 받고 죄인이라 욕먹던 그게 오히려 은혜 받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루도 안 빠지고 욕을 하니 내가 죄인이라는 걸 한 순간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집에 모신 이 순간에도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차라리 걸모습도 초라하다면 그냥 포기하고 살겠는데 겉으로는 꽤 모양이 좋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일어납니다. 침녕쿨처럼 이리저리 얽힌 게 갈등입니다. 그렇게 얽혀 서로 싸웁니다. 그냥 두면 안 되고 얼른 풀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 환경이 나로 하여금 결단을 요구했습니다. 가만있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믿기 이전에 주 예수께서 먼저 나에게 오셨습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에게 오신 건 나중이지만 먼저 마태라는 세리를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말씀하실 때마다 세리를 더러운 죄인으로 취급하시더니 그런 세리가 천국에 먼저 들어갈 거라 하셨습니다. 왜요? 죄인이니까요. 죄인인 줄 아니까 먼저 들어간다 하셨습니다. 그 소식이 먼저 내 귀에 들렸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어렴풋이 믿음 비슷한 게 생겼습니다. 그분을 만나면 혹시라도 무슨 방법이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무에 기어올랐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를 부르십니다. 내 이름까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우리 집에 오셨습니다. 내가 주님 소문을 듣고 내가 믿음을 어렴풋이나마 가진 줄 알았는데 주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삭개오가 구원받는 과정을 보며 두 번째 느끼는 게 우리 주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사실 삭개오의 복잡한 인생이 시작되기 전부터 있었던 사랑입니다. 삭개오도 믿었지만 그것보다 더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의 사랑입니다. 삭개오가 받은 은혜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

오늘 삭개오라는 사람을 살피며 우리는 먼저 우리 형편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도 복잡하지요. 이민 와 사는데 말 다르고 문화가 다릅니다. 경제생활도 참 어렵지요. 의료 문제, 세금 문제, 사업 문제, 인간관계 문제, 어느 것 하나 깔끔한 게 없습니다. 다 어중간하고 다 궤죄죄하고 다 복잡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복잡한 것은 우리 마음입니다. 왜 이렇게 답답한지, 좀 시원하게 어떻게 안 되겠는지, 길이 잘 안 보입니다.

삭개오가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된 것처럼 우리도 그런 답답함, 괴로움, 슬픔의 결과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같습니다. 우리의 이런 복잡한 형편도 우리 영혼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됩니다. 사회적으로 이것저것 성취도 하고 돈도 벌고 권력도 생기면 좋겠지요. 그러고도 손가락질 대신 존경까지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은 제가 건강한 줄 알고 의사를 찾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 우리, 답답한 우리는 하도 답답해 하나님께 하소연을 합니다. 주님을 직접 뵈면 어떻게 되지 않을까 싶어 나무에도 기어 올라갑니다. 잘 안 되는 거기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먼저 보고 부르신 주님, 그래서 우리 집에 오신 주님,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를 아시고, 우주를 지으시기도 전에 나를 당신의 것으로 택하신 주님이십니다. 삭개오를 보며 깨닫는 가장 중요한 진리가 바로 모든 게 주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도 은혜, 주 예수를 믿게 된 것도 은혜, 그리고 지금 이렇게 답답한 하루하루도 결국은 나를 사랑하시고 이 여리고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 십자가를 져 주실 주 예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삭개오의 결심을 통해 우리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순간 자유가 함께 온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답답하던 삶이 시원하게 풀리는 경험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의 삶, 능력의 삶입니다. 그렇게 답답한 가운데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만나는 순간 모든 게 시원하게 해결되는 이게 바로 삭개오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가 받아야 할 우리 주님의 은혜입니다. (권수경 목사)